

트럼프, 하원 청문회 불참...“나토 회의 참석”

백악관 “근거없고 당파적 청문회” 민주당 맹비난하며 참석 거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하원 탄핵 청문회에 불참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에 오는 4일 개최하는 공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팻 시필론 법률고문은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근거없고 대단히 당파적인 청문회는 과거 전례를 위반한다”며 “따라

서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일 청문회에 참석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내달 청문회 개최 사실을 알리면서 대통령을 청문회에 ‘초청’했다. 당시 내들러 위원장은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이날 오후 6시까지 트럼프 본인이나 변호인이 청문회에 참여할지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법사위는 정보위에 이어 하원에서 두번째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하는

위원이다. 앞서 정보위는 지난달 5일간 청문회를 개최해 12명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했으며 이를 토대로 작성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3일 법사위에 넘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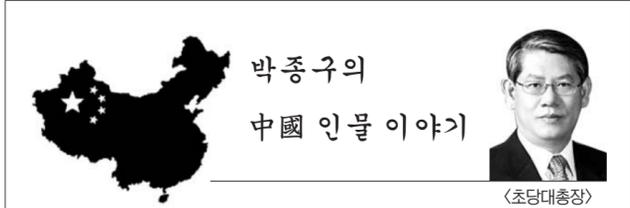
법사위는 4일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청문회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과 관련, 그의 행적에 헌법상 탄핵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학자 등 전문가 증인들이 나와 증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사위 청문회 기간 워싱턴을 떠나 있을 예정이다. 그는 3~4일 런던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일

출국해 4일 돌아올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이 역사상 가장 터무니없는 탄핵 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미국을 대표해 런던의 나토(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을 것”이라고 조롱조로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급진적인 좌파가 우리나라를 약화시키고 있다. 청문회가 나토(정상회의)와 같은 날 잡혔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켈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대가로 자신의 정적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를 중용했다는 의혹이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09〉 인종

인종(仁宗, 1010-1063)의 이름은 조정으로 복송의 4대 황제다. 중앙집권 체제가 안정되는 등 복송 왕조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인종의 여섯째 아들로 후궁 이씨 소생이다. 그의 생모가 꿈에 신선이 하늘로부터 하강하자 인종이 그대가 내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인종의 정실인 유허후는 애를 낳을 수 없자 그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다. 1022년 13세로 황위에 즉위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출생 사실을 몰랐다. 유허후가 황태후 자격으로 수렴정정에 나섰다. 명도 2년(1033) 유허후가 죽자 인종에 나섰던 생모가 죽은 사실을 알고 비통해했다. 평소 작은 어머니로 모신 양태후로부

시할 것, 조정의 은혜와 신의를 제대로 갚을 것, 조정의 명령을 신중히 할 것, 부역을 줄여 농사에 전념토록 할 것 등이다. 관료제도와 민생 대책에 역점을 둔 경력신정으로 조정의 분위기가 일신되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의 반대로 시행 1년만에 범종엄, 부필, 한기 등 개혁 세력이 중앙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여건이 성숙된 연후에 개혁을 추진하지는 개혁파의 견해를 무시하고 서둘러 추진해 갖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곽황후 폐립은 인종의 아킬레스건이 되었다. 성년이 될 때까지 자신의 출생 사실을 몰랐다. 유허후가 황태후 자격으로 수렴정정에 나섰다. 명도 2년(1033) 유허후가 죽자 인종에 나섰던 생모가 죽은 사실을 알고 비통해했다. 평소 작은 어머니로 모신 양태후로부

복송 4대 황제...왕조 전성기 구가

터 출생의 비밀을 들었다. 생모에게 황후에 버금가는 명예를 주기 위해 봉자를 조성에 유허후와 이씨의 위패를 함께 세웠다.

서하(西夏)와의 갈등이 심해졌다. 1041년 서하군이 침략해 호수천에서 양곡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송군의 피해가 커 전사자가 1만명을 넘었다. 2년여간 전쟁으로 군대와 재물의 피해가 커 1044년 서하와 강화조약을 체결했다. 송은 서하가 신하가 되는 조건으로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했다. 비단 13만필, 은 5만냥, 차 2만근을 보냈다. 범종엄이 서하와의 싸움에서 큰 역할을 했다. 방어시설을 강화하고 변경의 군 기강을 바로 세웠다. 서하 사람들이 “범종엄 가슴 속에는 수만 군대가 들어 있다”고 범종엄을 높이 존경했다.

요, 서하 등에 대한 과도한 세폐 지급, 대외전쟁의 실패 등으로 국정 개혁의 요구가 커졌다. 인종이 경력변법(慶曆變法)을 추진한 배경이다. 참정장사 범종엄에게 방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범종엄은 십사소(十事疏)를 올렸다. 관리의 승진 제도를 엄격히 시행할 것, 을서제를 억제할 것, 과거제도를 엄중히 실시할 것, 지방장관을 공정히 선임할 것, 공전(公田)을 고르게 할 것, 농업과 누에고치 생산을 장려할 것, 국방을 강화하기 위해 부병제를 실

여린 인종은 때때로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고 시의(侍醫)를 보내기도 하였다. 경우 3년 황후가 병사하자 황후의 지위를 복원하고 황제의 능묘에 안장하였다.

백성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은 황제였다. “궁궐이 즐거우면 백성이 적막해진다”며 황실이 근검하고 절도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부친 인종의 예를 따라 황제권 행사를 자제하고 ‘모든 일을 관료들과 상의’하는 중의 정치를 지향했다. 여이간, 범종엄, 한기, 부필, 구양수, 문연박 같은 명신들이 정사를 주도했다. 주돈이, 정호, 정이 같은 뛰어난 유학자가 배출되어 복송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소철이 진사시원에서 황제가 백성의 어려움에 관심이 적고 대신들과 정사를 제대로 의논하지 않는다는 답안을 제출했다. 시험관들이 소철을 처벌할 것을 주청했지만 인종은 과거는 본래 직언을 잘하는 인재를 뽑는 것이리라 인심에 부쳤다. 포청천이 황제의 면전에서 침을 튀기며 간언했는데 침방울을 소매 자락으로 뒤으며 그의 주장을 경청했다. 화려한 음식을 즐겨하지 않아 연회상에 오른 동쪽조개 100개가 2800년에 해당한다는 말을 듣고 먹지 않았다. 인종이 봉어하자 개봉의 상인들은 문을 닫고 거리에 동쪽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홍콩 시민들이 1일 미국 영사관 앞에서 구호가 적힌 현수막과 미국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 시위대·경찰 충돌 ‘도 넘은 폭력’ 비난 목소리

최루탄 말리던 노인 넘어뜨려 바리케이드 치우는 시민 폭행

지난달 24일 홍콩 구의원 선거 후 첫 주말 집회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가운데 양측의 ‘도 넘은 폭력’ 폭력 행위도 일어나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전날 침사추이 지역에서 주최 측 추산 38만 명(경찰 추산 1만6000 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다.

충돌이 격해지는 가운데 전날 오후 5시 무렵 이스트침사추이 지하철역 인근에 시민들이 모여 있자 한 폭동 진압 경찰이 최

루 스프레이를 발사해 이들을 해산시키려고 했다. 이에 한 여성 노인이 앞으로 나서 경찰에게 시민들을 향해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하지 말라고 꾸짖는다. 하지만 여러 명의 폭동 진압 경찰은 이 노인을 둘러싸고 욕을 퍼부으며 밀어낸다.

앞으로 다시 나선 노인은 이번에는 경찰을 향해 무릎을 꿇고 최루탄을 쏘지 말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폭동 진압 경찰은 이번에도 무차별하게 이 노인을 밀쳤고, 노인은 결국 땅에 쓰러지고 만다. 노인은 경찰의 폭행으로 뒷머리가 부어올랐고, 옆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을 겨우 빠져나왔다.

전날 새벽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몽콕 지역에서는 시위대의 폭행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한 53세 남

성 시위대가 도로 위에 세운 바리케이드를 치우려고 하자 시위대가 그를 둘러싸고 마구 욕을 퍼붓는다. 이에 이 남성이 휴대 전화를 꺼내 들어 이 장면을 찍으려고 하자 한 시위자가 하수관 덮개를 힘껏 휘둘러 이 남성의 머리를 친다. 시위자가 휘두른 하수관 커버에 맞은 이 남성은 기절하듯 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렸다. 머리를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던 이 남성은 응급 구조요원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홍콩 경찰 총수인 크리스 탕 경무처장은 이 폭행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폭력 행위였다고 비난하고, 이 남성의 휴대전화가 없어진 점을 들어 이 사건을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IAEA 前차장 “北, 추가 핵실험 불필요 핵탄두 소형화 임계치”

과거 북핵 시설을 직접 사찰한 경험이 있는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은 북한의 핵 역량이 추가 실험이 필요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이노넨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수준에 대해 “이미 충분한 실험을 거쳤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파키스탄과 인도를 예로 들며 “북한과 비슷한 핵수의 핵실험을 했던 두 나라는 이미 20여년 전에 핵보유국이 됐다. 핵무기 100개 이상을 갖고 있고,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핵실험을 할 필요도 없었다”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만약 완전히 다른 종류의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실험이 또 필요하겠지만, 갑자기 핵무기 성능을 시험해보기 위해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며 “현시점에서 그들이 핵실험을 추진한다면 그건 정치적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노넨 차장은 또 “정말 걱정하는 건 미국이 우려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한국과 일본을 겨냥하는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에) 최대 1t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아직은 수백kg 수준”이라면서 “이 부분에서 북한은 이미 임계치를 넘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